

'지식인의 탈주' 꿈꾸는 또하나의 세상읽기

이문열의 《변경》(전12권)을 읽고

정혜경 · 문학평론가

작가 이문열이 자기 문학의 '심화와 확대의 희망'으로 남겨놓았던 '그 이야기'를 총 12권의 장편소설 《변경》으로 완성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내가 가진 것, 그리고 할 수 있었던 일은 이것뿐이었다. 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려 한다"는 작가의 말에서 우리는 이 작품에 대한 그의 애정과 집필과정의 비장함을 발견할 수 있다.

작가의 삶에 밀착된 자전성

《변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먼저 작가의 삶에 밀착된 자전성(自傳性)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자전성을 주목하는 것은 이문열이라는 인기작가의 개인적 세월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변경》이 '소설 쓰기'라는 행위에 대한 작가의 반성적 성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왜 문학을 택하였는가?', '왜 쓰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변경》에서 풀어내고 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 혹은 세계인식의 통로를 점검하는 작업은 인간이 자기존재의 근거를 주체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며, 또 다른 고양된 의미의 전환점을 예고한다. 그가 이 작품을 완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것도 이같은 측면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물음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물음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변경》은 개인적 기록의 범주를 벗어나 한 시대를 문제삼고 있다. 《변경》의 인물들은 휴전 이후 체제방어의 논리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극대화되고 산업화 초기에 들어서면서 유신에 이르는 정치적 혼란기를 살아나간 이들이다. 월북한 공산주의자 이동영의 가족들은 휴전선 이남에서 살아남기를 시도한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생존과정을 통해 작가는 분단시대라는 억압구조를 포착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문열의 인식들인 변경론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에 의하면 변경이란 핵심에서 멀리 있는 단순한 주변이 아니라 적대적인 두 제국 사이에 끼인 경계를 가리킨다. 작가는 모든 것이 정치화되어 있는 변경의 상황에서 이데올로기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억압구조

《변경》은 먼저 작가의 삶에 밀착된 자전성을 거론할 수 있다. 왜 쓰는가?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풀어낸다. 또한 《변경》은 개인적 기록을 벗어나 한 시대를 문제삼고 있다. 휴전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극대화되고 유신에 이르는 정치적 혼란기를 살아나간 이들의 생존과정에서 작가는 분단시대라는 억압구조를 포착해낸다.

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한 대답에서 이와 같은 인식, 소유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에서 깨어나 정치적 입장을 획득하는 것에 비교하여 일종의 '뒤집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변경》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변경》에 등장하는 명훈·영희·인철·옥경은 정치적 원죄의식으로 인해 '문 밖으로 밀려난 자'들이다. 아버지대(代)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생애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폭력적인 현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문 안'으로의 편입이 차단된 그들은 극심한 경제적 궁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명훈은 짱패로, 영희는 매춘부로 전락하고, 작가가 가장 가까운 인물인 인철은 동료집단에서 격리된 채 끝없는 방황 속으로 떨어진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이문열 소설의 특성이랄 수 있는 전지적 시점에 선 화자의 거침없는 관념적 해석과 함께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인물의 형상화가 펼쳐지고 있다.

'문 밖에 선 자'들의 고통스런 생존 그려

이문열은 시대의 틀과 주된 양식에서 멀리 있는 '문 밖에 선 자'들의 고통스런 생존을 그리는 동시에 이들의 사각을 통해 '문 안'에 있는 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시대의 중심에 기생하는 유사의식(類似意識)을 집요할 정도로 들춰내고 있으며, 등장인물로



하여금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게 함으로써 길고 지난한 우회적 길찾기를 마련하고 있다. 결국 명훈은 도시빈민 집단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만 계급의식을 채 진전시키기도 전에 시대의 희생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영희는 세상에 복수하는 방법으로 천민자본주의의 길을 걸으며, 인철은 문학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들의 길찾기는 서로 다른 모습을 띠지만 변경상황에서 비롯된 정치적 원죄의식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작가는 변경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지한 가능성을 인철에게서 찾고 있다. 인철은 작가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동경(憧憬)을 의미하는 이카루스의 꿈 때문에 방랑하기도 하지만 또 그 힘으로 자신을 지탱하기도 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변경》은 인철의 편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그 속에서 작가는 인철이 문학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보여주면서 문학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그는 문학이 "국외자, 일탈자이면서도 시대와 절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며, 문학 속에서 주변계급적 요소를 발견하고 "쉽게 미치고 절망하고 잔인해지는, 그래서 일쑤 끔찍한 리바이어던을 만들어내는 두 기본계급 사이에서 그 욕망을 비판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찾아낸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탐색한 문학의 역할이 과연 객관적 현실을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문 밖'에 격리된 채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멀리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등장인물의 상황으로 인해, 또 인식적 기능을 하는 인철의 주관화 경향으로 인해 이 작품이 시대적 총체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변경》의 의의는, 이 작품이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억압구조 속에서 고통받았던 과거의 구체적 삶을 현재화하고, 변경론이라는 작가의 인식들을 통해 또하나의 세상읽기를 제출했으며, 문학이라는 통로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지식인의 탈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문학을 통해 현실극복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최근 그의 움직임과 관련된 문제다. '21세기 문학상'을 수상한 최근작 <전야, 혹은 시대의 마지막 밤>은 현재 당면한 우리의 정치·경제적 위기와 인간관계의 위기를 상기시키고 있으며 수상소감에서 이문열은 소설의 공리적 실용성에 대한 탐색을 언급하고 있다. 약 12년이라는 긴 집필기간, 1959년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시대적 배경, 12권의 방대한 분량이라는 《변경》의 신상명세서도, 자폐적 내면세계로 치닫는 이른바 1990년대적 소설의 한 경향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

문학과지성사/A5신/338면 내외/각 7000원